

특허청,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

- 특허청, 대한변리사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(9.24) -
- 최근 특허제도 변경 사항 및 특허법 개선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9. 24.(화)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(서울 강남구)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은 특허법·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‘특허청-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간담회는 특허청 특허법제 담당자 및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이 참여한다.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시행 예정(11.1)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,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특허청은 ▲반도체,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과 ▲해외 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 협력제도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.

이와 함께 ▲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의 완화,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, ▲발명자 정정제도 개선, 출원 시 발명자의 국적정보 기재 등 시행 예정(11.1)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.

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출원이 조기에 심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”며 “출원인들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※ 붙임: 특허청-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 계획(안)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특허심사기획국	책임자	과 장	신준호 (042-481-8321)
	특허제도과	담당자	사무관	이승준 (042-481-8252)

□ 간담회 개요

- **(목적)**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국제심사협력 현황을 안내하고, 추진 예정인 법 개정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법 개정안의 수용도 제고
- **(일시)** '24. 9. 24(화), 14:00~16:00
- **(장소)** 특허청 서울사무소 5층 대회의실
- **(참석자)** [특허청] 특허심사기획국장, 특허제도과장 및 법·제도 담당자
[대한변리사회]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, 법제이사 등 9명

□ 주요 논의 사항

- **(특허제도 홍보)** 최근 변경된 우선심사 제도 등
- **(국제심사협력 현황 안내)** PPH, CSP 제도 등 운영 현황 안내
- **(법 개선사항)**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(회복요건 완화, 실시 유형 추가, 정정심판 허락요건 등),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(발명자 정정제도, 발명자 국적기재 등)

□ 세부 일정(안)

시간	내 용	진 행
14:00~14:05	• 개회 및 소개	특허제도과장
14:05~14:10	• 국장님 인사말씀	특허심사기획국장
14:10~14:50	• 주요 정책 및 특허법·제도 개선(안) 발표	담당자
14:50~15:50	• 개정 검토안별 질의 및 의견청취	참석자
15:50~16:00	• 종합정리 및 종료	특허제도과장

*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**개회 전 사진촬영 예정